

☑ 핵심 정리

갈래 평시조, 연시조(춘하추동 각 10수씩 전 40수)

성격 풍류적, 전원적, 자연 친화적

제재 자연에서의 어부 생활

주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 생활의 여유와 흥취

특징 ① 초장과 중장, 중장과 종장 사이에 고려 가요처럼 후렴구가 있음.
② 대구법, 반복법, 의성법, 원근법 등의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함.

연대 조선 효종

출전 “고산유고”

◇ 이해와 감상

이 작품은 고려 때부터 전하여 온 ‘어부사(漁父詞)’를 조선 중종 때 이현보가 9장으로 개작한 후 이를 다시 윤선도가 여음(후렴구)을 넣어 창작한 것으로, 연장체 형식의 연시조이다. 각 수에서 여음(후렴구)을 빼고 보면 각기 초장, 중장, 종장 형태의 3장 6구 평시조 형식을 지니게 된다.

작가가 65세 때 전남 보길도에 은거하며 지은 이 작품은 계절마다 펼쳐지는 어촌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부 생활의 흥취를 담아 한 계절당 10수 씩 읊고 마지막에 ‘어부사시사여음’이라고 하여 만흥[漫興; ‘산중신곡(山中新曲)’중 여섯 수] 1수를 덧붙였다. 각 계절의 10수는 출항에서 귀항까지 어부의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로 읊은 것인데, 세속을 벗어나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경지를 격조 높고 아름답게 표현하였다.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었으며 대구법, 원근법, 시간의 추이에 따른 시상 전개와 조화 등 표현 기교도 뛰어나서 우리 시조 문학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.

☆ 춘사1 - 강마을의 풍경

앞개에 안개 것고 뒤뉘희 히 비친다

[앞바다] [뒷산] [배경-아침]

비떠라 비떠라

밤물은 거의 디고 낱물이 미러온다

[별물] [밀물] [아침+밀물-물고기 잡기 최적]

至勿悤 至勿悤 於思臥 [찌거덩찌거덩 어여차] [의성어]

江강村촌 온갓 고지 먼 빛치 더욱 도타

앞개에 안개 거치고 뒤 산에 해 비친다
배 띄워라 배 띄워라
밤물은 거의 지고 낱물이 밀려 온다
강촌에 온갓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

☆ 춘사2 - 출항 준비의 상황

날이 덩도다 물 우희 고기 떴다

[위+ㅎ중성체언]

달 드러라 달 드러라

갈매기 들식세식 오락가락 허누고야

[갈매기- 백구]

至勿悤 至勿悤 於思臥

낮대는 쥐여있다 탁쥬(濁酒) ㅅ병(瓶) 시릿느냐

[술 : 흥취, 풍류, 여유로움]

날이 덩도다 물위에 고기떴다
달 들어라, 달 들어라
갈매기 들씩씩 오락가락 하는구나
낮시대는 쥐어 있다 탁주병은 실었느냐

☆ **춘사3 - 항해중**

東동風풍이 건든 부니 물결이 고이 닐다

돛 두라라 돛 두라라
 東동胡호를 도라보며 東서胡호로 가자스라

至兪愈 至兪愈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외

압뒹히 지나가고 뒹뒹히 나아온다

[시각효과 강조] [압뒹히, 뒹뒹히 : ㅎ중성체언]

동풍이 살짝 부니 물결이 일어난다
 돛 달아라 돛 달아라
 동호를 돌아보며 서호로 가자
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온다

☆ **춘사4 - 어촌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**

우는 거시 뻬구기가 푸른 거시 버들숲가
[청각] [시각] → 대구

이어라 이어라
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
[배에서 어촌을 바라봄] [안개] [보였다 안 보였다]

至兪愈 至兪愈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외

말가흔 기픈 소희 온갓 고기 뒤노는구나

[소+희 : 연못+ㅎ중성체언] [생동감, 역동적 이미지]

우는 것이 뻬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
 배 저어라 배 저어라
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
 맑고 깊은 물에 온갓 고기 뒤노는구나

☆ **춘사5 - 맑고 아름다운 봄의 강과 흥취**

고운 별티 쩌안논디 물결이 기름굿다
[햇빛에 반짝이는 수면의 모습] [아름다움 강조]

이어라 이어라
 그물 을 주어듀라 낚시를 노홀일가

至兪愈 至兪愈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외

濯탁瓔영歌가의 興흥이 나니 고기도 니즐로다

[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만족감]

고운 햇별이 쩌었는데 물결이 기름 같다
 배 저어라 배 저어라
 그물을 던져둘까 낚시를 놓으리까
 탁영가의 흥이나니 고기도 잊을로다

☆ **춘사6 - 안분지족적 삶**

夕석陽양이 빗겨시니 그만후야 도라가자
[시간의 경과]

돛 디여라 돛 디여라
 岸안柳류 汀汀花화는 고비고비의 새롭고야

至兪愈 至兪愈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외

三삼公公(三公)을 불리소냐 萬萬事사를 싱각후라

[벼슬, 부귀영화, 세속적 가치] [속세의 일] [설의법 : 영탄적어조, 해설 - 직역:생각하겠는가] [의역:생각하지않는다.]

석양이 기울었으니 그만하고 돌아가자
 돛 내려라 돛 내려라
 버드나무와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
 삼공이 부러울쏘냐 만사를 생각하라

☆ 춘사7 - 자연 속에서의 풍류

방방초초를 밟아 보며 蘭蘭芷지도 뜨더보자

비세여라 비세여라

一葉葉片편舟주에 시른 거시 므스것고

[작은 배, 소박]

至芻欸 至芻欸 於思臥
 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갈 제는 노뿐이오 올 제는 돌이로다

[안개]

[달빛을 싣고 온다 : 풍류, 유유자적]

방초를 밟아보며 난초도 뜯어보자
 배 세워라 배 세워라
 일엽편주에 실은 것이 무엇인고?
 갈 때는 안개더니 올 때는 달이구나

☆ 춘사8 - 속세를 떠난 자연에서의 삶

醉취후야 누었다가 여흘 아래 누리려다

비미여라 비미여라

落락紅홍이 흘러오니 桃도源원이 갓갓도다

[시각강조]

[무릉도원-이상향, 선계]

至芻欸 至芻欸 於思臥
 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人인世세紅홍塵塵 이 언메나 7렸느니

[인간 세상, 세속 : 부정]

취하여 누웠다가 여흘 아래 내리려다가
 배 매어라 배 매어라
 떨어진 꽃잎이 흘러오니 무릉도원이 가깝도다
 인간의 흥진(속세)를 얼마나 가렸느냐

☆ 춘사9 - 달을 바라보는 흥취

낙시줄 거더노코 篷봉窓창이 둘을 보자

달 디여라 달 디여라

호모 밤들거나 子子規규 소리리 맑게 난다

[별써]

[두견새]

至芻欸 至芻欸 於思臥
 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나문 興흥 이 無무窮궁 하니 갈 길흠 니것따다

[끝이 없으니] [물아일체, 길흠 : 흥중성체언]

낙시대 거두고 봉창(배에 난 작은 창)의 달을 보자
 달 내려라 달 내려라
 별써 밤이 들었느냐 두견새 소리 맑게 난다
 남은 흥이 무궁하니 갈 길을 잊었더라

☆ 춘사10 - 어부로서의 유유자적한 삶

來리日일이 또 업스랴 봄밤이 몇덜새리

비브터라 비브터라

낮대로 막대삼고 柴식扉비를 추주보자

[시간의 경과, 공간의 이동]

至芻欸 至芻欸 於思臥
 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어부 淸애(漁父生涯)는 이령구리 디넬로다

[안분지족, 현실만족]

내일이 또 없으랴 봄밤이 그리 길겠는가
 배 붙여라 배 붙여라
 낮대로 막대 삼아 사립문(우리집)을 찾아보자
 어부의 한 평생은 이력저력 지내노라

☆ 하사1 - 비 갠 후 아름다운 경치

구운 비 머저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

배떠라 배떠라

낚대를 두러 메니 기픈 興흥을 禁금 못 홀되

至兪恩 至兪恩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沿연江강疊疊嶂嶂 은 湄라서 攄려넨고

[자연에의 경탄]

곳은비가 멎어가고 시냇물도 맑아온다

배 띄워라 배 띄워라

낚싯대를 둘러메니 깊은 흥을 참지 못 하겠구나

안개 자욱한 강과 첩첩 쌓인 봉우리는 누가 그려낸 것인가

☆ 하사2 - 안분지족, 물아일체

년납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마라

[건강, 소박, 안분지족, 단사표음]

달드러라 달드러라

靑靑蕪약笠笠은 씨잇노라 綠녹蓑사依의 가져오나

[계절감]

[계절감]

至兪恩 至兪恩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無무心심한 白백鷗구는 내 攄는가 제 攄는가

[욕심없는]

[모르겠다, 물아일체, 자연친화]

연잎에 밥을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하지 마라

달 들어라 달 들어라

샷갓은 쓰고 있노라 도롱이는 가져 오느냐

무심한 흰 갈매기는 내가 쫓는 것인가 제가 쫓는 것인가

☆ 하사3 - 배 위의 시원함과 자연에 순응하는 삶

마람 淸희 부람나니 篷봉窓창이 서늘코야

[ㅎ중성체언]

[배에 있는 창]

돛 두라라 돛 두라라

너름부람 덩홀소냐 가는 대로 비 시켜라

至兪恩 至兪恩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北북浦포 南남江강 이 어디 아니 釣홀러니

[설의법 해석 - 직역:아니 좋겠는가
의역:둘다 좋다.]

마름위에 바람이 부니 봉창이 서늘하구나

돛 달아라 돛 달아라

여름바람 일정하게 불겠느냐 가는 대로 배를 맡겨라

북쪽 포구와 남쪽 강 어디든 아니 좋겠느냐

☆ 하사4 - 우국충정

물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다 었더허리

[세상이 혼탁함]

[유유자적]

[굴원의 어부사 유사]

이어라 이어라

뭇오江강의 가자허니 千천年년怒노濤도 슬플로다

[오자서 상징-충성,모함,분노,자결]

至兪恩 至兪恩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楚초江강의 가자 허니 漁어腹복忠통混혼 날글세라

[굴원 상징-충성,모함,자결] [낚을까봐 두렵다
르세라 :~기 두렵다]

물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은들 어떠허리

배 저어라 배 저어라

오강에 가자하니 천년노도 슬프도다

초강에 가자하니 오복충혼 낚을까 두렵다

☆ 하사5 - 양보의 미덕 권유

萬만柳류綠綠陰음 어린 고디 一일便편끔똥티磯기 츄기특특후다
[기이하고 특이]

이어라 이어라

드리에 다 둔거든 漁어人인爭쟁渡도 허물마라

[어부들의 자리 다툼 : 책망하지 않는다는 의미]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鶴학髮발老로翁翁 만나거든 雷뢰澤택讓양居거 效효側측후후자

[늙은이]

[자리 양보]

[본받자]

버드나무 숲 우거진 곳에 이끼가 기특하다
배 저어라 배 저어라
다리에 달거든 어부들의 다툼을 책망하라
학발로옹 만나거든 양보의 미덕을 실행하자

☆ 하사6 -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며 느끼는 감회

긴 날이 저무는 줄 興흥의 미쳐 모루도다

[자연에 완벽 몰입, 몰아일체]

돋디여라 돋디여라

뱃대를 두드리고 水水調調歌가를 불러 보자

[흥취]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우애 성동에 蕙만古古心심을 그 뉘알고

[근심-죽음, 늙음]

[누+ | (주격조사) : 누가]

긴 날이 저무는 줄 흥에 미쳐 몰랐도다
뚫 내려라 뚫 내려라
뱃대를 두드리고 수도가를 불러보자
뱃소리 가운데 만고의 수심을 그 누가 알꼬?

☆ 하사7 - 황혼 무렵의 경치

夕석陽양이 도타마는 黃황昏昏이 갓갑거다

[종다마는]

[시간적 배경 제시]

배세여라 배세여라

바회 우희 에구븐 길 솔 아래 빗겨 있다

[공간적 배경 묘사]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碧벽樹슈鶯鶯聲성이 곧곧이 들리누다

[계절적 배경 : 피꼬리, 청각강조]

석양이 종다마는 황혼이 가까웠도다
배 세워라 배 세워라
바위 위에 굽은 길이 소나무 아래 비껴 있다
푸른 나무 숲 피꼬리 소리 곳곳에 들리는구나

☆ 하사8 - 휴식 중 한가한 즐거움

몰래 우희 그물 넣고 돛 미티 누어 쉬자

[위 : ㅎ중성체언]

[휴식]

비 미어라 비 미어라

모기를 밍다 하라 鳧창蠅승과 엇더하니

[설의법 : 마음의 여유가 있어 모기든 쉬파리든 상관하지 않는다]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다만 한 근심은 桑상大대夫부 드르려다

[모피, 창승과 대비 : 부정적 근심] [고사-돈 전문가 상홍양]
[재를 욕심을 지양하는 태도, 안빈낙도 · 안분지족 지향]

몰래 위에 그물 넣고 배 지붕 밑에 누워 쉬자
배 매어라 배 매어라
모기를 밍다 하라 쉬파리는 어떠한가
다만 한 근심은 상대부 들을까 두렵다

☆ **하사9 - 태풍으로 어지러워진 현실**

밤 소이 風飆浪穰을 미리 어이 짐작후리

[설의법 - 의역 : 짐작하지 못하였다]

닫디여라 닫디여라

野야渡도橫횡舟舟를 뒤라서 닐렀노고

[태풍의 피해, 혼탁한 현실]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
澗간邊변幽유草초도 眞진實실로 어연브다

[화자의 처지]

[불쌍하다]

밤사이 바람 물결 미리 어이 짐작하리
닫 내려라 닷 내려라
사공은 간 데 없고 배만 가로 놓였구나
물가의 파란 풀이 참으로 불쌍하다

☆ **하사10 - 자연을 즐기느라 한가할 겨를 없음**

蝸와室실을 바라보니 白빅雲운이 둘러있다

[화자의 집]

비 붓터라 비 붓터라

부들부채 古구 쥐고 石석徑徑으로 올라가자

[장소이동]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
漁어翁翁이 閑한暇가터냐 이거시 구실이라

[고기잡기 안하면 하느라 바쁜 것이다. 즉, 세속에 있지 않아도 여전히 바쁨]

작은 집을 바라보니 흰 구름이 둘러있다
배 붙여라 배 붙여라
부들부채 가로쥐고 돌길 올라가자
어옹이 한가하더냐 이것이 구실이라

☆ **추사1 - 속세를 떠나 자연과 동화된 삶**

物물外외에 조흔 일이 漁어夫부生生涯에 아너러냐

[속세밖] [깨끗한] [안빈낙도] [설의법 - 의역:맞다]

비 떠라 비 떠라

漁어翁翁을 운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

[비웃지 마라] [타인들의 그림마다 내 삶이 그려져 있더라]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
四수時시興흥이 한가지나 秋추江강이 으뜸이라

[으뜸, 제일 좋다]

속세를 벗어난 곳에서 깨끗한 일이 일이 어부생애
아니겠느냐
배 띄워라 배 띄워라
어옹을 비웃지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
사계절의 흥이 한가지나 가을 강이 으뜸이라

☆ **추사2 - 가을의 풍성함과 속세를 떠난 삶의
즐거움**

水슈國국의 古올히 드니 고기마다 솔져 일다

[가을 : ㅎ중성체언] [풍성함, 결실] 1

달드러라 달드러라

萬만頃경澄딩波파의 슬쿠지 容용與여후자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
人인間間을 도랴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

[속세, 인간세상-부정적 의미]

[총더러]

강촌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
닷 들어라 닷 들어라
넓고 맑은 물에 마음껏 즐겨보자
인간세상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

☆ 추사3 - 배타고 즐기는 풍경

白帛雲운이 니러나고 나모 굿티 흐느긴다
[바람]

돌 두라라 돌 두라라
밀물의 西서湖호 | 오 혈물의 洞동湖호 가자

至兪愨 至兪愨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白帛蘋빈紅홍蓼료는 곳마다 景경이로다

[시각 강조, 색채 대비] [경이롭고 아름답다]

흰 구름이 일어나고 나무 끝이 흔들린다
돛 달아라 돛 달아라
밀물에 서호가고, 썰물에 동호가자
흰 마름 붉은 여뀌꽃은 가는 곳마다 아름답다

☆ 추사4 - 자연을 대하는 즐거움

그러기 떴는 박기 못 보던 뫼 뵈는고야

이어라 이어라
낙시질도 허려니와 取취한 거시 이 興흥이라
[자연을 바라보는 흥]

至兪愨 至兪愨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夕석陽양이 부이니 千천山산이 金금繡슈 -로다

[금수 : 비단]

기러기 떴있는 밖에 못 보던 산이 보이는구나
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
낙시질도 허려니와 내가 취할 것이 흥이라
석양이 비치니 온 산이 수놓은 비단이구나

☆ 추사5 - 고기 안주와 술의 흥취

銀은脣순玉옥尺척이 멋치나 걸렸느니
[큰 물고기] [안분지족, 현실만족]

이어라 이어라
蘆로花화에 불 부러 곱히야 구어 노코

至兪愨 至兪愨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달병을 거후리혀 박구기에 브어 다고

[흥취, 풍류]

커다란 물고기가 멋이나 걸렸느냐
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
갈대에 불붙여 골라서 구워 놓고
질흥병을 기울여 바가지에 부어다오

☆ 추사6 - 가을 바람과 더불어 즐기는 자연

넙바람이 고이 부니 두론 돌기 도라와다
[옆에서 부는 바람]

돌 디여라 돌 디여라
瞑명色식은 나아오디 淸淸興흥은 머러 인다
[어둠] [끝없는 흥취]

至兪愨 至兪愨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紅홍樹슈 淸淸江강이 슬미디도 아니한다

[시각 강조, 색채 강조] [싫증]

옆 바람이 고이 부니(바람이 바뀌어) 다른 뜻에 바
람 든다
돛 내려 라 돛 내려라
어두움이 가까이 오되 맑은 흥은 멀었도다
단풍잎 맑은 강이 싫지도 밍지도 않다

☆ 추사7 -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



흰 이슬 빈견논디 불근 돌 도다온다

비 세여라 비 세여라

鳳凰樓루 杳杳然연하니 淸光광을 놀을 즐고

[임금 궁전 : 연군] [임금에 대한 사랑]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
玉兔토의 띠는 藥약을 豪호객객을 먹이고자

[자연을 즐길 줄 아는 사람]

흰 이슬 내리는데 밝은 달 돌아온다
배 세워라 배 세워라
임금 계신 궁전이 아득하니 맑은 빛을 누구를 즐고
옥토끼가 짙은 약을 호객에게 먹이고 싶구나

☆ 추사8 - 속세와의 거리감

乾乾坤곤이 제공인가 이거시 어드메오

[하늘과 땅]

비 매여라 비 매여라

西風풍塵塵 몬 미츠니 부체후야 머엇후리

[세속 : 부정적의미] [속세와의 거리감]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
드른 말이 업서시니 귀시서 머엇후리

[속세의 말] [세속과의 결연의 의지를 다질 필요도 없을만큼 멀다]

하늘과 땅이 제각각인가 여기가 어디인가
배 매어라 배 매어라
바람 먼지 못 미치니 부채질하여 머엇하리
들은 말이 없으니 귀 씻어 머엇하리

☆ 추사9 - 어부 생활의 만족감

웃 우희 서리오디 치운 줄을 모롤로다

[계절감]

달디여라 달디여라

釣船선이 줍다 후나 浮부世세와 언더후니

[속세] [설의법 - 의역 : 자연(여기)이 낫다]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
니일도 이리 후고 모뢰도 이리 후자

[만족]

웃 위에 서리와도 추운 줄을 모르도다
달 내려라 달 내려라
낚싯배가 줍다 하나 속세와 비교하면 어떠한가
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도 이리 하자

☆ 추사10 - 자연에 묻혀 사는 은자의 적막함

松松間간石석室실의 가 曉曉月월을 보자 후니

비 브터라 비 브터라

空공山산落락葉葉의 길흠 엇디 아라볼고

[늦가을] [외로움]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
白백雲운이 좃차오니 女녀蘿라衣의 므겁고야

[바람에 날림]

숲속 내 집에 가서 새벽달을 보자 하니
배 붙여라 배 붙여라
공산낙엽에 길을 어찌 찾아 갈까
흰 구름이 따라오니 입은 옷도 무겁구나

☆ 동사1 - 겨울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

구름 거둔 후의 햇볕이 두텁거다

비 떠라 비 떠라

天_하地_상디_아閉_어폐_어塞_어식 호디 바다흔 依_의舊_구구_하다

[천지가 눈과 구름으로 꽉 차있음] [여전하다]

至_지匆_국匆_홍 至_지匆_국匆_홍 於_어思_사臥_와

그업슨 물결이 깊 편 듯 후어있다

구름 걷힌 후에 햇볕이 두텁도다
 배 띄워라 배 띄워라
 천지가 얼어붙어 있는데 바다는 여전하구나
 끝없는 물결이 비단 편 듯 고요하다

☆ 동사2 - 겨울 출어 준비

주대 다스리고 빗밥을 박았느냐

[출어 준비]

달 드러라 달 드러라

瀟_소湘_상상_동동_廷廷_당당은 그물이 언다 한다

[강과 호수] [계절적 배경]

至_지匆_국匆_홍 至_지匆_국匆_홍 於_어思_사臥_와

이때에 漁_어釣_도도 후기 이만한 디 업도다

낙시줄대 다스리고 뱃밥을 박았느냐
 달 들어라 달 들어라
 소상강 동정호는 그물이 언다 한다
 이때에 낚시하기 이만한 데 업도다

☆ 동사3 -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

여튼 갯 고기들이 먼 소히 다 갔느냐

[얕은 물] [멀고 깊은 못]

돌두라라 돌두라라

저근덜 날 도흔 제 바탕의 나가보자

至_지匆_국匆_홍 至_지匆_국匆_홍 於_어思_사臥_와

맛기 곧다오면 굴근 고기 문다 한다

얕은 물의 고기들이 깊은 못으로 다 갔느냐
 돛 달아라 돛 달아라
 잠시 날 좋을 때 바다에 나가보자
 미끼 아름다우면 큰 고기 문다 한다

☆ 동사4 - 아름다운 겨울 경치 예찬

간밤의 눈개 後_후후에 景_경경_物物_물이 달라고야

[설경이 펼쳐짐]

이어라 이어라

압희는 萬_만만_頃頃_경경_琉琉_유유_璃리 뒤희는 千_천천_巖巖_암암_玉玉_옥옥_山산

[유리같은 넓고 맑은 바다] [철철이 눈 덮인 산]

至_지匆_국匆_홍 至_지匆_국匆_홍 於_어思_사臥_와

仙_선선_界界_계계가 佛_불불_界界_계계가 人_인인_間間_간간이 아니로다

[인간세상] [아름다운 경치 예찬]

간밤에 눈 그친 후에 풍경이 달라졌구나
 노 저어라 노 저어라
 앞에는 유리 같은 맑은 바다 뒤에는 철철옥산
 신선세상인가 부처세상인가 인간 세상이 아니로다

☆ 동사5 - 바람이 불기를 기다림

그물 낚시 니저 두고 뱃전을 두드린다

이어라 이어라
 압개를 건너고자 몇 번이나 헤어본고

至叟 至叟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 무단(無端)은 된바람이 항혀 아니 부러올까
 [뜬금없이]

그물 낚시 잊어두고 뱃전을 두드린다
 노 저어라 노 저어라
 앞바다를 건너고자 몇 번이나 생각했는고
 공연한 된바람이 혹시 아니 불어올까

☆ 동사6 - 우국충정의 마음

자라가는 가마귀 먼날치 지나거니
[고요한 겨울밤의 분위기]

돈디여라 돈디여라
 압길히 어두우니 暮모靄설이 자자덜다

至叟 至叟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 鵝아鴨압池디를 다퉈서 草초木목斬참을 싣들던고
[고사-거위 떼를 이용해 전쟁에 승리] [병자호란의 치욕 : 우국충정]

자러가는 까마귀 몇이나 지나갔느냐
 돛 내려라 돛 내려라
 앞길이 어두운데 저녁 눈이 짝 차있다
 거위 떼를 누가 쳐서 치욕을 씻었던가

☆ 동사7 - 좋은 경치에서 낚시하는 모습

丹단崖애翠취벽벽이 畵화屏屏근티 들렀는디

비 세여라 비 세여라
 巨거口구細세鱗린을 낚그나 문 낚그나

至叟 至叟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 孤고舟주蓑사笠립에 興흥계워 안갓노라
 [흥취]

붉은 낭떠러지 푸른 벽이 병풍같이 들렀는데
 배 세워라 배 세워라
 크고 좋은 물고기를 낚으나 못 낚으나
 고주에 도롱이 샷갓만으로 흥겨워 앉았노라

☆ 동사8 - 속세와의 거리감

木木の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식식하고
[화자의 지조, 절개있는 모습 투영]

비 미여라 비 미여라
 머흔 구름 恨헌티 마라 世世上상을 𠵼리온다
[속세를 가려주는 긍정적 존재] [세속 : 부정적 의미]

至叟 至叟 於思臥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 波파浪랑聲성을 厭염티 마라 塵塵喧喧을 막는또다
[속세를 가려주는 긍정적 존재] [세속 : 부정적 의미]

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혼자 어이 식식하고
 배 매어라 배 매어라
 험한 구름 원망마라 인간세상을 가려준다
 파도 소리 싫어하지 마라 속세의 소리를 막아준다

☆ 동사9 - 중국 고사에 등장하는 은둔자의 삶

滄州州주품오도도를 네브터 날런더라

[두보의 시 인용-신선사는 곳, 강호(자연)] [화자가 머무는 공간과 비교]

달 디여라 달 디여라

七칠리리 여흘 羊양피피 옷슨 괴 언더 하니런고

[고사-칠리탄에서 낚시하던 은둔자 엄자릉]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三삼千천六육白백 낙시질은 손 고븐 제 었더턴고

[고사-십년동안 낚시하던 은둔자 강태공]

[화자와 비교]

창주가 우리 도(道)라 예부터 일렀더라

달 내려라 달 내려라

칠리탄에 낚시하던 엄자릉은 어떻던가

십년동안 낚시하던 강태공은 어떻던가

☆ 동사10 - 날 저물 무렵의 휴식

이와 저므러간다 宴연息식이 말당토다

비 붓터라 비 붓터라

구는 눈 뿌린 길 붉은 곳 훑터딘 디 흥치며 거러가셔

至兪兪 至兪兪 於思臥

지 국 흥 지 국 흥 어 사 와

靄靄月월이 西서峰봉의 넘도록 松송窓창을 비겨 잇자

아 날이 저물어간다 쉬는 것이 마땅하도다

배 붙여라 배 붙여라

싸리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 흥겨워하며 걸

어가서

달빛이 서봉을 넘도록 창문을 기대어 잇자